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한·중 문학교육 연구

— 윤동주를 중심으로

윤여탁

< 次例 >

- I. 한국문학사와 윤동주
- II. 조선족 문학으로서의 윤동주의 시
- III. 한국 문학교육에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 IV. 조선족 문학교육에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 V. 조선족 문학의 교육적 시각

I. 한국문학사와 윤동주

한국 시문학사에서 윤동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를 제외하고는 우리 문학사의 암흑기라고 불리기도 했던 일제 강점기 후반의 시문학을 논의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 윤동주와 그의 시는 한국문학사의 맥락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과였으며, 문학교육의 맥락에서는 정전(正典, canon)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이와 같은 그의 위상 정립은 문학사 연구나 서술에서 일제 말기에 한국어로 시 쓰기가 어려웠던 시절의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과 복원된 민족국가의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위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까지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북간도 명동 출신의 시인 윤동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는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¹⁾라는 유고시집을 통해서 한국 문학사에 등장했으며, 제1차 교육과정기인 1956년에 발행된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새로운 길」이 수록되면서 국어(문학)교육의 대상이 되었다.²⁾ 좌익과 우익 계열의 시인들의 시가 고루 실렸던 해방 직후의 교과서에서는 물론 한국전쟁기의 교과서에서도 수록되지 않았던 윤동주의 시가 1955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재판본³⁾이 나온 직후에 국어 교과서에 제대로 선택되면서 시 교육뿐만 아니라 시 문학사에서도 그 위상을 확보하였다. 이후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이육사 등과 더불어 국어교육에서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윤동주 문학의 복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민족주의 담론(談論)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의 문학은 일제 말기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성과(작가 정전, 작품 정전, 해석 정전의 모든 면에서)이자 교육 정전(윤여탁, 2008: 135-138)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특히 저항 문학으로서 윤동주 문학에 대한 평가는 한국전쟁과 남과 북으로 대표되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을 겪으면서 선택된 순수 서정시와 분석주의라는 문학교육 담론과는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떻든지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들은 한국인들이 애송하는 시가 되었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 시인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는 윤동주

1) 정음사. 31편 수록.

2) 윤동주가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는 배경에는 해방 직후 유고시집 간행에 참여했던 정병욱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길」(1차, 3차 중학교), 「굴뚝」(3차 중학교, 7차 중학교), 「자화상」(5차 중학교), 「소년」(6차 중학교), 「오줌싸개 지도」(7차 중학교), 「별 헤는 밤」(2차 고등학교), 「참회록」(3차 고등학교), 「서시」(4차 고등학교)와 정병욱이 쓴 「잊지 못할 윤동주」(6차, 7차 고등학교)라는 전 기문이 국정 교과서에, 이 외에도 많은 작품이 선택과목인 『현대문학』,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3) 정음사. 93편 수록.

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시가 아닌 근대의 서정 정신을 형상화한 서정시, 지식인의 자기 성찰을 보여주는 순수시라고 재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평가 작업은 우리 문학사나 교육에서 윤동주를 제외할 수 없는 신화(神話)로 재탄생시키고 있으며, 민족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 윤동주는 한국 문학사에서는 이처럼 높이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욱, 김조규, 심련수, 송철리 등과 더불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만주를 주무대로 하여 창작 활동을 했던 조선족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었다. 윤동주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족에게도 자랑스러운 시인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북의 초창기 문학사에서는 윤동주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문학사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보는 사관(史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학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실재하고 있던 문학적 사실들을 취사선택하여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고, 시대나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그 문학사적 전개 과정이나 역사적 의미를 체계화하여 기술한다. 한국 문학사나 조선족 문학사에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윤동주를 평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이 글에서는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중국 조선족 문학의 관계를 논의하고, 한국의 중등학교 『국어』⁴⁾ 교과서와 중국의 조선족 교과서인 『조선어문』⁵⁾에 실린 「새로운

4)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중학 국어』와 『고등 국어』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1997-2007)의 중학교 『국어』와 『생활국어』, 고등학교 『국어』(상하)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5) 현재 조선족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는 『조선어문』은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으로 나뉘며, 초중은 7-8학년은 각 2권씩, 9학년은 상하권 합본으로, 고중은 필수 4권과 선택도서(『시가와 산문』, 『소설과 희곡』, 『신문과 전기』, 『언어문자옹용』, 『문화론저열독』 등으로 과목을 나누었지만 현재까지는 『시가와 수필 감상』, 『소설감상』, 『희곡 감상』, 『신문과 전기』, 『습작』, 『문법』 6권이 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가 있다. 초중 교과서는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라는 표제까지 포함하여 '의무교육조

길』을 중심으로 그 교육 내용과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조선족 문학으로서의 윤동주의 시

중국 조선족 문학은 한국 측에서 보면 월경(越境) 문학, 중국 측에서 보면 55개 소수 민족 문학 중의 하나라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 의미가 탐색되고 있다. 또 시대적으로는 약간의 편차를 두고 남과 북의 문학적 특성을 공유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영향 아래 전개되었으며, 해방 후 초창기에는 북의 문학과 최근에는 남의 문학과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 문학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함경도 종성의 잔반(殘班) 출신이었던 윤동주 가문에게 북간도는 실질적으로 이들 화령 윤씨 일가(一家)의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고향이었으며, 이들이 국경을 넘어 정착한 이국땅인 명동이나 용정이 아닌 평양, 서울, 도쿄[東京], 교토[京都]는 타향일 수밖에 없었다. 윤동주는 2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예민했던 시기인 청소년기와 청년기 6년 남짓(감옥에 갇혀있던 1년 7개월을 제외하고 7개월 정도의 평양, 4년의 서울, 1년 5개월의 일본 생활)을 타향에서 보내야 했다. 그리고 식민지 청년이자 나약한 지식인에게 이런 타향살이는 남다른 경험이었다.

1930년대 우리 근대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훼손된 고향이라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사

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으로 2004-2007년에 개정판을, 2008-2009년에 수정판을 발행하였다. 고중 교과서는 '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라는 표제를 포함하여『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으로 2009년에 간행되었다.

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상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렇지 만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 상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훼손되거나 상실된 고향이 아니라 그리움의 대상인 고향일 뿐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고향에 갈 수 없었던 유이민(流移民) 문학 일반과도 다르며, 보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Diaspora)⁶⁾ 문학과도 다른 중국 조선족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윤동주의 시 쓰기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개인적인 표현으로서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윤동주의 시는 일제 강점기 조선족 시문학을 대표하는 경향으로, 남이나 북이 고향이었기에 해방 이후에 자신의 고향(공간으로서의 고향뿐만 아니라 이념적, 정신적 지향으로서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시인들과는 다른 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일상생활 속에서 고민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의 본령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대한 한국 문학사의 평가에는 일본 생활 후반기에 송몽규 등과 같이 검거되어 차가운 후코오 캐[福岡] 형무소에서 옥사(獄死)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사건이 짙은 그림자가 되어 드리워져 있다.⁷⁾

그동안의 윤동주 연구자들은 윤동주의 창작 활동 기간 10년 정도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습작시와 동시(童詩)적인 시 세계를 보여주었던 시기와 본격적인 서정시(抒情詩)의 세계를 형상화하였던 청년기라는 두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즉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민음사, 1999. 이하 『전집』으로

6) 원래 유대인의 유랑 경험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로 이산(離散) 또는 분산(分散)으로 번역되며, 근대 이후에는 식민지배나 분쟁으로 인한 이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민 등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경험을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7) 송우혜(1992: 322-326)에 수록된 '윤동주에 내려진 판결문' 참조

약칭)에 수록된 작품과 그의 짧았던 창작 시기와 생애⁸⁾를 중심으로 그의 시 세계를 전기시와 후기시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윤동주 시작 활동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동시로 대표되는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들의 특성은 주로 유년기 체험에 바탕을 둔 정서와 청소년의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집』에는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1934. 12 - 1937. 3)와 '창'(1936 - 1939. 9)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여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시들은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청소년 문학교육의 제재로 선택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윤동주의 동시 창작은 청소년기 습작으로 시작하여 1930년대 어린이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시 창작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즉 방정환의 선구적 활동을 계승하여 윤석중, 정지용, 이주홍, 신고송 등의 어린이 문학 창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윤동주도 연길에서 발행된 『카톨릭 소년』에 다섯 편의 동시를 발표하였다.⁹⁾ 이런 대표적인 예로 시험을 앞둔 소년의 심리를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는 「만돌이」(1937. 3)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이 동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을 차면서

8) 1917년 12월: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 1932년: 용정 은진중학 입학; 1935년: 평양 송실중학 전학; 1936년 4월: 송실중학 자퇴와 광명학원 중학부 편입; 1938년: 광명학원 중학부 졸업; 1941년: 연희전문 문과 졸업; 1942년: 일본 도쿄 릿쿄[立教]대학 영문과 입학, 교토 도지사[同志社]대학 영문과 편입; 1943년 7월: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 1945년 2월: 큐슈[九州] 후코오카[福岡] 형무소에서 유탄.

9) 1934년 12월 24일에 「삶과 죽음」, 「초 한 대」, 「내일은 없다」 등의 시를 쓰면서 윤동주(尹東柱)의 시 창작은 시작되었다. 동시 창작은 1935년 12월에 「동요 조개껍질: 바다 물소리 듣고 싶어」를 쓰면서 시작되었으며, 연길에서 간행된 『카톨릭 소년』에 1936년 윤동주(尹童柱)라는 이름으로 「병아리」(11월), 「빗자루」(12월), 1937년에 「오줌싸개지도」(1월), 「무얼 먹고 사니」(3월)를, 윤동주(尹童舟)라는 이름으로 「거짓부리」(10월)를 발표하였다.

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만돌이'라는 소년의 번민을 다루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낯설지 않은 우리네 아이들의 모습을 엿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요즘의 아이들은 돌 던지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것이며, 이렇게 선택하여 마련된 시간을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을 즐기면서 보내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윤동주의 초기 동시는 어린 아이의 순박한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보편 문학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윤동주의 동시를 비롯한 전기의 시는 어려운 문학적 수사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동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도 쉽게 다가온다(임현순, 2008: 424-448). 그래서 이 시기의 시들은 초·중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널리 선택되고 있으며, 그 선택의 폭도 넓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로는 「고향집」(1936. 1. 6), 「오줌쏘개 디도」(1937. 1), 「굴뚝」(1936. 가을), 「무얼 먹구 사나」(1937. 3), 「새로운 길」(1938. 5. 10), 「아우의 인상화(印象畫)」(1938. 10. 17), 「코쓰모쓰」(1938. 9. 20), 「소년」(1939)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윤동주의 후기 시는 청소년기를 벗어난 20대 초반 청년기의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주로 혼자 타향과 타국에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풍부한 독서 체험과 많은 사색을 바탕으로 시 창작에 본격적으로 임한 시기이다. 그의 시 창작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생산한 시기로, 이 시기의 작품들이 문학사적 평가는 물론 문학 교육의 관점에서도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집』에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39 - 1941: 육필 자선 시집의 19편)와 '습유(拾遺) 작품'(일본 유학 전후의 시)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여 있다.

북간도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특별한 고뇌를 형상화한 이 시들은 시인의 내면적 성찰과 구도자적 삶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청년 윤동주는 이 시기 대부분을 고향을 떠

나 타향살이를 하면서 가족과 친구,¹⁰⁾ 고향 산천을 그리워해야 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시를 저항시로 보느냐, 순수시로 보느냐에 따라 윤동주의 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오세영, 1995: 371-388), 일제강점기 1940년 전후에서 윤동주 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는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어떻든지 이와 같은 청년기의 고뇌를 담아낸 윤동주의 시는 한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단계에서 문학교육의 제재로 선택되었다.

이 시기 시로서는 가장 늦은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의 내용 중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辱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와 같은 시구(詩句)에 주목하여 저항시로 설명되고 있는 「쉽게 씨워진 시」(1942. 6. 3)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현재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윤동주는 이와 같은 철저한 자아 성찰을 통하여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있으며, 이 만남을 위하여 그는 눈물과 위안의 날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이처럼 철저한 뒤통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 타향에서 진정한 자아(自我)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찾은 길을 실천해야 하는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쉽게 씨워진 시」에 표명된 이와 같은 자각은 자기 인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행동이 요구되고 필요한 시점에서 그는 일제에 의해 행동을 제약받기에 이른다. 그래서 결국 행동으로 실천해보지도 못하고 좌절당하고 말았다(윤여탁, 1995: 272).

어떻든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윤동주 아니 그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시를 썼던 시인이자 식민지 지식인이었던 하라누마

10) 고종사촌이었던 송몽규, 숭실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문익환 등이 같은 동네 친구들이다.

도오쥬우[平沼東柱]는 감옥에서 그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자화상」(1939. 9), 「팔복(八福)」(1940. 12), 「또 다른 고향」(1941. 9), 「십자가」(1941. 5. 31), 「별 헤는 밤」(1941. 11. 5), 「서시(序詩)」(1941. 11. 20), 「참회록」(1942. 1. 24) 등이 있다.

III. 한국 문학교육에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에서 윤동주의 시는 1956년에 교육부에서 발행한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처음 등장한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인 이 시기는 해방 직후와 전쟁이라는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 미국식 교육 제도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다. 이때부터 한국 교육에는 민족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담론으로 작용하게 된다(정재찬, 1996). 이런 맥락에서 윤동주와 그의 시는 일본 강점기 저항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게 된다.

이렇게 한국 문학교육계에서 정전의 지위를 확보한 윤동주의 시는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문학계가 재편(再編)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이념적 지향과도 부합되었다. 아울러 그의 시가 서정시로서도 그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점은 현대 국어교육의 초창기부터 「새로운 길」, 「굴뚝」과 같은 동시풍의 시와 「참회록」, 「별 헤는 밤」, 「서시」 등의 서정시가 문학교육의 중요한 제재이자 활동 자료로 채택되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과 한국의 문학교육에서 제재로 채

택하고 있는 「새로운 길」에 제시된 작품 해설과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그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¹¹⁾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조선족 교과서에 수록된 「새로운 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11) 한국『중학 국어』 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단원 표지: 필자 주)

I. 시의 세계

1. 시 감상 / 2. 시 작법 / 3. 시조 감상 / 4. 시조 작법

(대단원 길잡이: 필자 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을 시로써 나타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시의 세계를 가까이함으로써 한결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시를 어떻게 감상하며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시 감상과 시 짓기에서 재미와 보람을 얻자.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흥을 표현해 온 시조의 형식과 거기 담겨진 생활과 사상의 무늬를 살펴 보자.

현대시의 자유로운 형태와 섬세한 마음의 표현에 주목하여, 우리들의 심정을 시로써 한결 더 맑게 해 보자.

1. 시 감상

「봄 소식」(유치환) / 작품 해설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 작품 해설

「봄길에서」(김영랑) / 작품 해설

「새로운 길」(윤동주) / 작품 해설

「사향도(思鄉圖)」(김광균) / 작품 해설

익힘 문제

2. 시 작법

3. 시조 감상

4. 시조 작법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새로운 길」(1938. 5. 10)

이 작품은 윤동주의 시 세계에서 초기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나 분위기로 보아 후기로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썼던 소년기를 넘어 자기 성찰의 시를 쓸 수 있는 청년으로 성장한 시인의 다짐과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를 제재로 한국의 문학교육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시 작품 「새로운 길」

청년다운 기개가 엿보이는 굳건한 작품이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이렇게 무슨 구호와 같은 싯귀를 대뜸 내걸고, 시인은 자기의 갈 길을 명료하게 보여 줍니다. 너무도 솔직하여 오히려 대담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란 이렇게 써서 무방합니다. 특히 소년들은 이와 같이 대담한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다와집니다.

시를 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다와야 합니다. 나이를 보나 무엇으로 보니 학생임에 틀림없었건만, 공연히 어른을 흉내내다가 늘 너절한 시밖에 쓰지 못하고 마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이 그렇거니와, 더우기 시는 자기를 속여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 길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익힘 문제

1. 위에 든 다섯 편의 시¹²⁾를 거듭 읽고 관찰과 표현이 뛰어난 작품을 말해 보라.
2. 위의 시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골라서, 그 시에 나타난 정경(情景)을 설명하고 비평하는 글을 써 보라.
3. 위의 시들을 거듭 읽어서 월 수 있도록 하라.
4. 다섯 편의 시를, 지은이의 생각이 잘 나타나도록 낭독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보라.
5. “봄”을 제목으로 하여 시를 써서, 반 동무들에게 발표하여 보라.

이와 같은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교육의 특징을 살피면, 먼저 시작물을 제재로 제시한 다음 ‘작품 해설’을 그 뒤에 배치하여 이해와 감상의 길잡이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작품 해설은 일종의 해석 정전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작품 이해와 감상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서도 ‘도입 해설’이나 ‘이해와 감상의 길잡이’라는 형태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과서 구성이나 내용은 문학교육에서 학습자보다는 작가나 작품, 작품의 창작 배경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둘째로 시 제재를 제시한 다음에 교수·학습 활동으로 나열된 ‘익힘 문제’에서는 제재를 꼼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이해와 감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작품을 한 편씩 나열하지 않고 ‘봄’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묶음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 작품들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감상이나 이해를 발표하거나 글로 쓰게 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 점은 분석주의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미국에서 ‘죽은 말(dead horse)’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신비평(New Criticism)¹³⁾’이 한국에 소개되었지만

12) 「봄 소식」(유치환),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봄길에서」(김영랑), 「새로운 길」(윤동주), 「사향도(思鄉圖)」(김광균)

13) 신비평은 백철의 「뉴크리티시즘에 대하여」(『문학예술』, 1956. 11)에 의해 처음 소개된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 이후 한국문학 연구와 문학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직은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셋째로 이 교과서에서는 시를 외우거나 낭독하는 활동과 시를 창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섯 편의 정전적인 시 작품을 제제로 제시하고, 이 시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 5가지 중에서 시를 낭독한 활동, 암송(暗誦)하는 활동, '봄'을 소재로 창작하는 활동을 3가지나 제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중세의 문학교육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문학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시(輕視)되었던 교수-학습 활동이다. 동아시아 문학교육에서 시를 비롯한 전범(典範)이 되는 글을 낭독, 암송하거나 이를 선행 텍스트로 하여 새로운 글을 창작하는 활동을 중시했던 전통(김성룡, 260-287)을 이 시기의 문학교육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지 한국의 문학교육에서 선택한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격동기를 겪은 이후에 시의 적절한 교육 제재였으며, 이 시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던 소년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제재였다. 더구나 일제 강점기에 옥사(獄死)라는 특별하고 남다른 인생사를 보여주었던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은 이 시의 해석에 특별하게 작용했으며, 그 교육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었다.

IV. 조선족 문학교육에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현재 중국 동북 3성의 조선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조선어문』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정(개정판)되었으며, 이를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다시 수정한 교과서(수정판)이다.¹⁴⁾ 이 중 수정판 교과

서에 윤동주의 시는 초중 7학년 상권에 「새로운 길」(1단원), 「소년」(1단원 '루적과 응용'), 초중 9학년 상/하권 합본에 「참회록」(상 1단원 '루적과 응용'), 「서시」(하 1단원 '자기절로 해보기')¹⁵⁾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초중 7학년 상권 『조선어문』 1단원에 수록된 「새로운 길」의 작품 해설과 학습 활동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나젊은 시인이 걷고자 하는 길은 공간적으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향하는 활기찬 길이고 시간적으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래일도 가야 할 희망의 길로서 언제나 새로운 젊음의 길입니다. 시인이 걷고자 하는 새로운 길과 학생이 걷고자 하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음미하면서 시를 감상해봅시다.

시 작품 「새로운 길」

학습활동

1. 시에서 시인 대신 시속에 등장하여 말하는 사람을 서정적주인공이라 합니다. 이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이 걷고자 하는 『나의 길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였겠는가를 말해 봅시다.
2. 구성이 같거나 비슷하고 뜻이 비슷하거나 대립되는 두 구절을 짹을 맞춰 나란히 놓아서 서로 조응되거나 보충되게 하는 수법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을 잘 읽어보고 이렇게 쓰면 표현상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대구법으로 된 문장을 만들어봅시다.
내를 건어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3. 시에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고개를 넘어서 마을로』를 반복하여 쓴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이 시를 운율에 맞게 읊어보고 암송합시다.

-
- 14) 개정 이전의 초중 『조선어문』(1999-2000) 교과서는 1-4학년 각 2권씩 총 8권이었으며, 초중 4학년 1권에 「새로운 길」, 「서시」가 수록되어 있다.
- 15) 개정판(2004-2007) 『조선어문』 초중 9학년용은 상, 하 2권이었는데, 이 중 하권의 '자기절로 해보기'라는 활동 항목에 윤동주의 「서시」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후자의 시는 윤동주의 시가 아니라 작자 미상의 시다.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윤동주의 시로 잘못 알려져 있는 작품을 확인하지 않고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정판(2008-2009)에서는 초중 9학년용 『자습독본』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에서 제시된 「새로운 길」에 대한 작품 해설은 한국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보다는 간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학생이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의 의미를 시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와 같은 이해와 감상의 길잡이가 '도입 해설'의 형태로 제재보다 앞에 제시되고 있으며, '문학의 즐거움'이라는 대단원의 제목과 학습 목표, 단원의 길잡이¹⁶⁾

16) 조선족『조선어문』교과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단원의 표지: 필자 주) 제1단원 문학의 즐거움 1. 새로운 길 / 2. 사랑이 있는 생활 / 3. 리해의 선물 습작: 생각과 느낌 쓰기 / 종합성학습: 재미나는 문학활동
단원학습안내 작품의 향기를 느껴요. 학습목표 1. 문학작품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달해봅니다. 2. 문학작품을 즐겨 읽는 습관과 태도를 가집니다. (대단원 길잡이: 필자 주) (전략) 이 단원에서는 시 『새로운 길』, 수필 『사랑이 있는 생활』, 소설 『리해의 선물』을 읽으면서 문학의 즐거움을 맛보며 작품을 읽고난 다음 그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습작에서는 자기의 감수를 구속없이 진실하게 쓰는 『생각과 느낌 쓰기』 훈련을 해보고 『재미나는 문학활동』이라는 주제로 종합성학습활동을 하게 됩니다.
1. 새로운 길 / 2. 사랑이 있는 생활 / 3. 리해의 선물
자기절로 해보기 1. 이 단원에서 우리는 세편의 문학작품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달해보았으며 문학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시를 읽고 학습활동을 자기절로 해봅시다. 시 2수: 「엄마야 누나야」(김소월) / 「행복」(허영자) ○ 시 『엄마야 누나야』에서 시인은 엄마와 누나와 함께 강변에서 살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였고 시 『행복』에서 시인은 작은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순수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수의 시를 암송합시다. 2. 다음 소설(오금량의 「매혹적인 봄밤」; 필자 주)에서는

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단원의 세부적인 교수 학습 활동에서는 한국의 문학교육에서의 활동과 비교할 때 여러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핀 제1차 교육과정기와는 달리 현재의 한국 문학교육에서는 중요시 되지 않는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1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중요시되지 않았던 시의 속성인 대구법이나 반복의 효용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은 시의 형식과 이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는 활동¹⁷⁾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의 문학교육

루적과 응용

1. 다음의 산문시를 암송합시다.

『소년』(윤동주, 1939년)

2. 다음의 명언을 기억하고 학습과 생활에서 활용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것은 바다이고 바다보다 넓은것은 하늘이며 하늘보다 넓은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 유고 / 너그러움은 보슬비마냥

습작

생각이나 느낌 쓰기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원리 제시: 필자 주)

다음의 글을 읽어보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알아봅시다.

『효녀 심청, 불효녀 심청』(제재 글)

학습활동

1. 학생은 심청이의 『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현실과 결부하여 말해봅시다.

2. 소학교를 갓 졸업하고

종합성학습

재미나는 문학활동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제재 글: 필자 주)

학습활동

1.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는 제목으로 문학작품읽기 주간활동을 진행합시다. 학급에서 한주일사이 매 학생이 한두편의 문학작품(시, 수필, 소설, 동화)을 읽고 그 문학작품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말해봅시다.

2.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는 주제로 된 문학좌담회를 진행합시다.

17) 한국의 국어교육계에서는 3차와 4차 교육과정기인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지향했던 교육 방법이었다.

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조선족 교과서의 문학 교수 학습 활동은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은 문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뿐만 아니라 자습 활동(자기절로 해보기)과 공동 학습(종합성 학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습량이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학습의 원리와 제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학습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학습(자기절로 해보기, 루적과 응용, 습작, 종합성 학습)에서도 활동과 지식 학습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학습자들에게 재미나 흥미보다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 『조선어문』 교과서의 교수 학습 활동의 특징은 지식에 관한 내용은 설명으로 제시하고, 이런 원리를 학습자의 구체적인 활동(말하기/문장 만들기)으로 발전시키는 언어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나 언어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했던 국어교육의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측면은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강조하는 문학주의를 넘어 언어교육의 기능 통합적 교육이나 생활로서의 문학(명언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지향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의 문학교육의 방법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V. 조선족 문학의 교육적 시각

중국 조선족 문학의 문학교육에서는 세계 문학, 중국 문학, 남파 북의

문학, 조선족 문학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의 특수성은 조선족 문학을 교수·학습의 중요한 제재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선족 문학의 교육적 의의는 대략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중국 문학사라는 맥락과 중국 소수 민족인 조선족의 문학사라는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은 중국 문학교육에서 조선족 문학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三省)인 흑룡강, 길림, 요령 지역의 조선족 학교에서 『조선어문』으로 교육되는 맥락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을 무대로 활약했던 윤동주, 조룡남, 김철과 같은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과 남(김소월, 이상화, 이육사, 김춘수, 안도현 등)과 북(1999-2000년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박세영, 박팔양, 조기천, 김상오, 2007-2009년 수정판 교과서에 수록된 박팔양, 조기천, 김상오 등)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교재에 수록되어 교수·학습되고 있다.¹⁸⁾ 어떻든지 윤동주는 남과 북의 시인이라기보다는 조선족 문학으로 분류해야 한다. 특히 윤동주가 만주에서 태어나 이곳을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중국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소수 민족 문학으로, 한국문학의 맥락에서는 디아스포라 문학이거나 다문화(multiculture)¹⁹⁾ 문학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조선족 문학을 한국문학사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윤동주와 같은 조선족 문학이면서 일제 강점기 유이민 문학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사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의

18) 개정 이전 『조선어문』에 수록 시에 대해서는 김경훈(2008: 311-317)에서, 개정판(2004-2007) 『조선어문』에 수록된 시에 대해서는 황규수(2008: 501-519, 2009: 149-167)에서 논의된 바 있다.

19) 다문화라는 개념은 인종, 종교, 문화, 언어, 민족의 다양성이나 성(gender), 장애(disabilities), 사회계층(social class)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생기는 다양성을 뜻한다. Banks, A. J.(1994), 모경환, 최종옥, 김명정, 임정수 역(2008: 35) 참조

재일동포 문학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문학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문학사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주지역의 재미동포 문학 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유치환처럼 일시적으로 만주에 체류하다가 남으로 귀국한 경우, 백석처럼 일제 말기에 만주로 이주했다가 북으로 귀국한 경우, 이용악처럼 만주에 갔다가 남을 거쳐 북으로 간 경우와는 좀 다르지만, 윤동주도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만주 체험과 식민지 체험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윤동주와 그의 시는 한국문학사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특히 일제 말의 암흑기를 채워주는 문학사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조선족 문학에 대한 이상과 같은 두 관점은 각각 한국과 중국의 문학교육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다. 전자의 관점은 중국의 조선족 문학교육에서, 후자의 관점은 한국의 문학교육에서 독자적으로 견지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족 문학을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은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문학 연구자들이 조선족 문학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더라도 이런 모색의 기틀 위에서 조선족 문학을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논리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영민 편(1995), 『윤동주 전집 2 —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 이 논문은 2010. 4. 3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권오만(2009),『윤동주 시 깊이 읽기』, 소명출판.
- 김경훈(2008),『조선족 초중 『조선어문』교재 연구 — 소설과 시 교육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26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311-317.
- 김성룡(1997),『전범(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1, 한국문학교육학회, pp.260-287.
- 김윤식(1996),『뉴크리티시즘 비판』,『김윤식 선집』3, 솔, pp.397-437.
- 박봉배 편(1987),『광복 40년의 교과서 — 시』, 나랏말쓰미.
- 송우혜(1992),『윤동주 평전』, 열음사.
- 송현호·최병우 외(2008),『중국 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1, 국학자료원.
- _____ (2009),『중국 조선족문학의 탈식민주의 연구』2, 국학자료원.
-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2008-2009),『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7학년 상하권-9학년 상하권), 연변교육출판사.
- _____ (2009a),『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필수①-필수④), 연변교육출판사.
- _____ (2009b),『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 조선어문』(선택, 시가와 수필 감상), 연변교육출판사.
-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2006),『김조규·윤동주·리욱』, 보고사.
- 오세영(1995),『윤동주의 시는 저항시인가? — 시의 재평가』, 권영민 편,『윤동주 전집2 - 윤동주 연구』, 문학사상사, pp.371-388.
-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2001),『윤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 왕신영 등편(1999),『(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민음사.
- 윤여탁(1995),『자아 성찰의 내면적 고백』,『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p.272.
- _____ (2008),『한국의 문학교육과 정전: 그 역사와 의미』,『문학교육학』27호, 한국문학교육학회, pp.135-138.
- 이건청(1994),『윤동주 — 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 건국대 출판부.

- 임현순(2008),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아동'의 시적 형상화 방식」, 『대동문화연구』 62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pp.423-452.
- 정은경(2007),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편집위원회(2000),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심련수편』, 연변인민출판사.
- 홍장학(2004), 『정본 윤동주 전집 원전 연구』, 문학과지성사.
- 황규수(2008), 「중국 조선족 初中 新編『조선어문』收錄 詩 고찰」, 『어문연구』 36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01-519.
- _____ (2009), 「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조선어문』 수록 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p.149-167.
- Banks, A. J.(1994),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모경환, 최종욱, 김명정, 임정수 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 Guillory, J., Lentricchia, F., McLaughlin, T.(1994), *Critical terms for literary stud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찬부 역(1994), 「정전」,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신문화사.

■ 국문초록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한·중 문학교육 연구 — 윤동주를 중심으로

윤여탁

한국 시문학사와 문학교육에서 윤동주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를 제외하고는 우리 문학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 후반의 한국시를 논의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 윤동주와 그의 시는 한국문학사의 맥락에서 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성과였으며, 문학교육의 맥락에서는 정전(canon)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그의 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일제 말기의 한국어로 시 쓰기가 어려웠던 공백기를 매워야 했던 문학사적 필요성과 복원된 민족국가의 국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선택의 결과였다.

어떻든지 윤동주는 한국 문학사에서는 물론 중국 조선족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러나 윤동주는 한국보다는 자신이 태어난 만주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며, 짧은 생애 중에서 중요한 시기였던 청년기에 타향을 떠돌다가 일본의 감옥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특별한 이력을 가진 시인이었다. 이와 같은 윤동주의 시에 대해서 한국 문학사와 중국 조선족 문학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윤동주의 시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문학교육 내용이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윤동주의 시 세계를 초기의 동시와 후기의 서정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중등학교 교과서인 『국어』와 중국의 조선족 중등학교 교과서인 『조선어문』에 실린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윤동주, 한국 문학사, 문학교육, 정전, 조선족 문학, 동시, 서정시, 교과서,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

■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Chinese Literature's Status and
Literature Education of Korea-China
— Focus on Yoon Dongjoo

Yoon, Yeo-tak

Yoon Dongjo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Korean poetry history and literature education. There was a time when Korean literature society could not talk about Korean poetry without his work during the dark age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s the context of Korean literature history, Yoon Dongjoo and his poetry was the century's representative work and as the context of literature education, it becomes a canon. The foundation of his status served the purpose of filling the gap of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t was the result of new nation's educational choice for restor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Futhermore, Yoon Dongjoo is not only a leader in Korean literature, but also a leader in Korean-Chinese literature. However he thought Manchuria as his homeland rather than Korea. And Yoon Dongjoo had a very unique history with living short life wandering around the place where he didn't thought as a homeland and dying in a Japanese jail. With his work which was produced by this impressive personal background, the Korean-Chinese literature division and Korean division study different point of views and this difference of two countries makes different aspects of interpretation of his works.

Therefore the fundamental literature education content and method about Yoon Dongjoo's poetry are analyzed differently in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is point, this study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Chinese literature and Korean literature with his children's poems and lyrics. More 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learning with his poetry "New Way", included in middle school's language textbook of Korean and Korean-Chinese.

[Key words] Yoon Dongjoo(윤동주), Korean Literature History, Literature Education, Canon, Korean-Chinese Literature, Children's Poem, Lyrics, Textbook,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Learning